

12월 농식품 해외시장동향 및 전망 [러시아]

□ 농림수산물 수입동향

(단위: US백만달러, %)

| 구분 | 2012년 1-10월 누계 | | | 2012년 10월 당월 | | 2011년 1-10월 누계 |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|
| | 금액 | 전년동기 대비(%) | 비중(%) | 금액 | 동년전월 대비(%) | 전년동기 대비(%) | 비중(%) |
| 수입 전체 | 255,674 | 102.5% | 100% | 29,180 | 115.1% | 137.8% | 100% |
| 식품 및 농업원료 | 32,167 | 92.9% | 12.6% | 3,759 | 116.0% | 121.9% | 13.9% |

자료: 연방통계청

□ 주요품목 수입동향

(단위: 천톤, %)

| 품목 | 2012년 1-10월 누계 | | 2012년 10월 당월 | | | 참조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| 물량 | 전년동기 대비(%) | 물량 | 전년동월 대비(%) | 동년전월 대비(%) | '11.1-10/ '10.1-10 | '11.10/ '10.10 |
| 신선·냉동육 | 1,149 | 95.8 | 132 | 116.7 | 101.3 | 103.2 | 87.2 |
| 신선·냉동돈육 | 592 | 99.1 | 70.7 | 131.5 | 101.2 | 105.9 | 85.5 |
| 신선·냉동가금육 | 424 | 114.3 | 55.5 | 105.2 | 114.6 | 101 | 64.3 |
| 신선·냉동어류 | 591 | 104.8 | 67.2 | 95 | 98.5 | 86.8 | 95.9 |
| 우유와 비농축크림 | 176 | 106.6 | 10.1 | 56.4 | 101.7 | 107.3 | 97.6 |
| 우유와 농축크림 | 114 | 73.3 | 4.3 | 31.1 | 52.1 | 78.1 | 58.4 |
| 그중: 건조우유 | 64.5 | 81.8 | 3.7 | 72.5 | 73.2 | 60 | 33.2 |
| 버터 | 80.3 | 92.9 | 8.8 | 145.2 | 106.1 | 98.2 | 51.8 |
| 치즈와 커티지치즈 | 314 | 90.9 | 36.5 | 97.6 | 100.1 | 101.1 | 95.8 |
| 신선 혹은 냉장 감자 | 449 | 30.2 | 3.5 | 33.4 | 196.2 | 3.1배 | 17.7 |
| 신선 혹은 냉장 토마토 | 671 | 103.9 | 53.4 | 124.8 | 139.7 | 103.3 | 137.9 |
| 신선 혹은 냉장 양파, 마늘 | 269 | 52.9 | 9.4 | 66.6 | 121.2 | 85.9 | 56.9 |
| 양배추 | 157 | 50.5 | 5.3 | 113.6 | 192.7 | 156.1 | 66.1 |
| 신선 혹은 냉장 오이류 | 135 | 104.1 | 25.8 | 152.9 | 7.6배 | 93.2 | 74.9 |
| 신선 혹은 건조 바나나(플랜틴 포함) | 1,053 | 99.4 | 118 | 107.3 | 153.4 | 123 | 118.3 |
| 신선 혹은 건조 오렌지 | 388 | 86.3 | 32.9 | 101.4 | 145.7 | 115.8 | 75.6 |
| 신선 혹은 건조 귤(맨더린), 클레멘타인, 월킹 및 이와 유사한 감귤류 잡종 | 406 | 105.6 | 32.6 | 93.8 | 3.9배 | 113.2 | 88 |
| 신선 포도 | 309 | 97.9 | 70.3 | 83.8 | 94.4 | 92.3 | 101.3 |
| 신선 사과 | 1,016 | 109.7 | 115 | 107.6 | 168.6 | 94.5 | 107.6 |
| 옥수수 | 35.3 | 33.1 | 1.5 | 2.9배 | 27.9 | 3.4배 | 75.7 |
| 팜유 | 494 | 94.1 | 78.8 | 140.2 | 101.2 | 110.7 | 64.9 |
| 해바라기씨유 | 16.3 | 18.3 | 2.8 | 5.9배 | 45.3 | 147.1 | 6.1 |
| 야자(코프라)유, 팜핵유 | 66.3 | 89.2 | 9 | 89.5 | 96.6 | 67.5 | 99.5 |

| | | | | | | | |
|---------|-----|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|-----|
| 혹은 바바수유 | | | | | | | |
| 조당 | 444 | 19.1 | 1.1 | 194 | ... | 119.9 | 2.2 |

자료: 연방통계청(벨라루시와 카자흐스탄공화국과의 무역지수 합산)

- 비CIS국으로부터의 식품 및 농업원료 수입비중은 전체 수입에서 12.7% 차지(2011년 1-10월 13.8%). 식품 수입량은 전년동기대비 14.5% 감소함. 그중 수입량 감소품목은 버터(6.1%), 감귤류(5.5%), 차(4.6%), 조당(급감). 수입량 증가품목은 가금육(15.3%), 어류(5.2%), 치즈와 커티지치즈(20.2%), 커피(11.5%), 곡물(35.7%)(그중 보리(56.0%), 옥수수(31.6%) 증가)
- CIS국으로부터의 식품 및 농업원료 수입비중은 전체 수입에서 11.5% 차지(2011년 1-10월 14.7%). 식품 수입량은 전년동기대비 24.3% 감소함. 그중 수입량 감소품목은 응축우유(24.2%), 버터(36.9%), 치즈와 커티지치즈(39.4%)

□ 소비 동향

○ 2011년 러시아 카라멜 수요 성장

- 2007-2011년간 러시아에서 카라멜 수요는 성장했고 2011년에는 248천 톤에 달함. 2008-2009년간 수요 감소가 관찰되었으나, 2010-2011년간 지표는 성장함. 카라멜은 특히 러시아국내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음. 지난 5년간 카라멜 판매규모는 1.8% 감소함. 지표 하락이 가장 높은 해는 2009년이며(전년대비 5% 감소), 이는 전반적으로 경제위기와 연관됨. 2010-2011년간 카라멜 판매규모는 증가했지만, 성장률은 시장포화로 인해 둔화됨. 제품 소비자들은 러시아 주민의 85% 이상이며, 판매성장은 1인당 소비자의 카라멜 소비성장에 기인함
- 2007-2011년간 수요구조에서 수출 비중은 증가하였고, 2011년에는 총수요의 14.4%로 집계됨. 2007-2011년간 러시아에서 카라멜 수출공급규모는 2배 이상 성장했고 2011년에는 37.6천 톤을 기록함. 이 기간 동안 주요 카라멜 수입국은 아제르바이잔, 우크라이나, 몽골임
- 2007-2011년간 러시아시장에서 카라멜 공급동향은 수요동향을 반복했음. 2011년에 공급은 2007년 대비 7.8% 증가함 266.9천 톤에 달함. 러시아에서 카라멜 공급은 주로 국내생산으로 이루어짐. 하지만 2007-2011년간 전체공급규모에서 생산의 비중은 수입제품 비중의 성장으로 인해 매년 감소함. 이 시기 카라멜 생산동향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보임. 생산성장은 2010년에만 관찰되며 이는 2009년 대비 6.7% 성장함
- 지난 5년간 전체 공급에서 수입의 비중은 매년 성장함. 즉, 2007-2011년간 대러 카라멜 수입은 2배 성장했고 2011년에는 46.9천 톤으로 집계됨. 지난 5년간 대러 주요 카라멜 공급국은 우크라이나임

○ 2011년 러시아 사우어크림(sour cream) 수요 성장

- 2007-2011년간 러시아에서 사우어크림 수요는 성장했고 2011년에는 537.3천 톤에 달함. 지난 5년간 수요 감소는 2008년에만 관찰되었고(1.5% 감소), 이는 제품가격 인상과 연관됨
- 분석가들의 평가에 따르면, 2012-2016년간 러시아에서 사우어크림 수요는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수요규모 증가율은 지난 5년간과 비교 시에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. 사우어크림 수요 성장을 감소는 시장포화와 더불어 마요네즈 및 마요네스소스와 경쟁 때문에 발생할 것으로 보임. 사우어크림 대용제품들은 사우어크림보다 가격이 저렴하지만 유사한 소비특성을 지님
- 2007-2011년간 사우어크림 공급 또한 수요증가로 인해 성장함. 2011년에 러시아시장에서 사우어크림 공급은 2007년보다 64.3천 톤 높게 나타남. 2012-2016년간 사우어크림 공급은 실제 변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. 2007-2011년간 사우어크림 수입비중은 공급 총규모의 0.7-2.3%로 집계됨

○ 2011년 맥주 도매시장에서 판매규모 4.7% 감축

- 2011년 맥주 도매시장에서는 판매규모가 4.7% 감축되었으며, 시베리아연방관구와 극동연방관구를 제외한 모든 연방관구들에서 판매규모 감소가 관찰됨. 2011년 러시아 맥주도매시장의 지역구조에서

전년대비 가장 변화가 심한 지역은 불가연방관구이며, 이 지역의 비중은 22.67% 감축되었고 판매 규모가 가장 많이 감소됨

- 러시아 맥주 도매시장의 상품구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요식업체들이며, 그 비중은 러시아 전역에서 성장함. 하지만 요식업체에 해당되는 러시아 맥주 도매시장 규모는 2011년에 연간 2.7% 감소함

□ 향후 시장 전망

○ 이슈 현안

○ 동식물검역국: 러시아, 육류 수입에 대한 새로운 요건 도입하지 않았다

- 러시아는 육류 생산 시에 성장촉진제 락토파민을 사용한 육류 수입에 대한 새로운 요건들을 도입하지 않았고 단지 해외공급자들에게 이전에 승인된 규정들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을 뿐이라고 동식물검역국은 밝힘
- 보건부와 관세동맹위원회에 의해 이전에 승인된 요건들에 입각하여, 락토파민이 합법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국가들(미국, 캐나다, 브라질, 멕시코)에서부터 육류 공급 시에 3가지 조건들 중의 하나를 이행해야 한다고 동식물검역국은 상기시킴. 첫 번째 조건으로는, 수출국의 전권기관은 락토파민 존재여부에 대한 해당로트 조사에 관한 승인된 실험실의 소견서(락토파민 부재사실 확인)를 수의증명서에 별첨해야 함. 두 번째 조건으로는, 수출국의 전권기관은 수출되는 육류에 락토파민 부재사실에 관한 보증서를 수의증명서에 별첨해야 함. 세 번째로는, 동식물검역국이 반입 시에 락토파민 함량에 대한 실험실관리를 실시하는 것임. 하지만 세 번째 경우에는 수입상이 부차적인 위험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단점이 있는데, 왜냐하면 수입상이 로트(예를 들어, 쇠고기)를 반입하고 나서 그 속에서 락토파민이 발견되게 되면 그 로트는 러시아 영토내로 통과되지 않게 되기 때문임. 따라서 당국 대표자는 두 번째 조건을 더 선호한다고 언급함
- 이전에 동식물검역국이 밝힌 바에 따르면, 2012년 12월 7일부터 락토파민을 사용하는 육류 및 육류제품 공급자들은 러시아로 제품 수출 시에 반입된 제품이 성장촉진제 락토파민 사용 없이 생산되었음을 증명해주는 공급국의 국립수의청에서 발급된 서류를 별첨해야 함. 이 서류가 없을 시에 각각의 반입되는 로트는 그 속에 락토파민 부재여부에 대한 실험실분석을 받은 후에만 러시아시장으로 통과될 수 있음. 이와 같은 시스템은 일정 시기가 지난 후에 발효될 것이며 이러한 시기는 별도로 정해질 예정임. 이 시기 동안 공급국의 수의청은 락토파민 부재여부에 대한 실험실 검사시스템을 창설해야 하며 향후 러시아와 관세동맹 가입국들의 시장 용도로 지정된 제품의 각각의 로트에 락토파민 부재를 확인해주는 실험실검사증을 동반해야 함
- 러시아육류연맹의 자료에 따르면, 2012년 9개월간 러시아로 반입된 돈육 258.6천 톤 중에서 브라질산이 83.5천 톤을 차지함(브라질은 대형 공급국 순위에서 2위). 이외에도, 이 국가는 쇠고기 총 수입규모 240.3천 톤에서 184.7천 톤을 공급함. 비교를 하자면, 미국에서 러시아로 돈육 56.8천 톤 공급, 쇠고기 32.3천 톤 공급됨

(자료: RBC)

○ 러시아, 한 달 내 독일측 수의관리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독일산 육류 수입 제한할 듯

- 러시아는 독일이 관세동맹 요건들에 입각하여 러시아로 공급되는 육류제품에 대한 수의관리시스템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독일 측에 주었으며, 만약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러시아 당국은 개별 업체들에 대한 수입제한이 아닌 주 전체에 대한 수입제한을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동식물검역국은 독일농업부 대표부와의 협상 시에 밝힘
- 러시아 측은 신선 육류제품의 품질에 대한 수의관리를 향상시키자는 차원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힘. 무엇보다도 독일의 연방주 4곳인 니더작센 주, 쉘레스비히홀슈타인 주, 바이에른 주,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불만이 일고 있음
- 이전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, 러시아는 12월 10일부터 11개 독일업체들의 육류-유제품 공급 금지 도입을 준비함. 11개 업체들 금지는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업체들 제한에 머무르지 않을 예

정임. 이제 한 달 동안 부응하는 변화가 도입되지 않으면 4개 주에 대한 제한조치를 도입할 예정임

(자료: 리아 노보스찌 통신)

○ 2011년 러시아에서 쌀 공급 1.5백만 톤

- 2007-2011년간 러시아에서 쌀 공급은 39% 성장함(1.1백만 톤 → 1.5백만 톤). 러시아시장에서 쌀 공급 감축은 오직 2007년에만 관찰됨(약 7%). 공급 감축은 2007년에 중국에서 러시아로 쌀 수입공급 감소로 인해 발생됨. 공급 감축 원인은 검역안전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을 반입하는 위반 때문이었음
- 2007-2011년간 총 공급규모에서 수입산 쌀 공급 비중은 2008년 25%에서 2011년 13%까지 변동됨. 수입규모의 감축은 러시아 정부의 쌀 재배업에 대한 지원으로 인해 촉진됨
- 2007-2011년간 러시아에서 쌀 수요는 거의 37% 성장함(1백만 톤 → 1.3백만 톤). 수요 감축은 오직 2007년에만 관찰됨(3% 감소). 수요 성장이 가장 높은 해는 2010년도이며(13% 성장), 수요 증가의 주요 원인은 러시아에서부터 쌀 수출 공급 성장 때문임

(자료: 비즈니스 스타트)

○ 어린이용 주스 수입 2011년에 63% 성장

- 2011년에 러시아의 어린이용 주스 수입은 현저하게 성장함. 2010년에 1.5천 톤이 수입되었다면, 2011년에는 2.5천 톤이 수입되어 전년대비 63% 증가함
- 러시아 지역별로 어린이주스가 반입되는 지리적 점유율을 살펴보면, 2011년 수입제품 규모 면에서 러시아유럽지역 3곳이 리더를 차지함: 모스크바(수입산 어린이주스의 64.4% 차지), 모스크바 주(수입의 32.6% 차지), 리페츠크 주(점유율 2.7%). 이 세지역이 수입의 99.7%를 차지하며 그 외 나머지 지역들의 비중은 0.3%를 넘지않고 있음
- 대러 어린이주스 공급자 비중을 살펴보면, 유럽국가들인 독일, 체코, 폴란드 회사들이 우세를 보임. 독일회사들은 러시아시장에 약 1천 톤의 어린이주스를 공급하며(전체 수입의 약 40%), 체코 생산자들은 약 500톤(19.4%), 폴란드는 400톤 이상(16.9%) 정도를 공급함
- 어린이주스의 수입가격은 2011년 전 기간 동안 인상됨. 성장률은 평균 24.2%를 기록했고 이는 러시아소비자들의 예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. 수입산의 톤당 평균가격은 1.69천 달러까지 달함. 러시아시장 반입 시에 가격 면에서 가장 높은 수입산은 캐나다산으로 7.44천 달러/톤 수준이며, 스위스산도 역시 6.75천 달러/톤 수준을 보임

(자료: 테비즈 그룹)

○ 2013년 육류반가공품 시장 플러스동향 예상

- 러시아 냉동 육류반가공품 시장규모는 2009-2012년간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. 2011년에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20.2% 증가함. 2012년 결산 시에 러시아 냉동 육류반가공품 시장에서 수입비중은 물량기준 그리 높지 않은 편임
- 러시아 냉동 육류반가공품 시장에서는 5년간 연속으로 가격이 인상되고 있음. 냉동 육류반가공품에 대한 변화된 수요는 새로운 가격 인상으로 귀결됨. 2011년 벨메니, 만두, 라비올리의 평균 소매가격 성장률은 11.4%를 기록했고, 육류 파르쉬(고기 같은 것)의 경우 12.5% 기록함. 2012년 7개월간 첫 번째 그룹 상품의 소비자가격은 3.2%(kg당 4.8루블) 성장하여 kg당 157.9루블로 거래됨. 7월에 육류 파르쉬의 평균소매가격은 올해 1월 대비 2.6%(6.1루블/kg) 인상된 234.1루블/kg를 기록함
- 2012년 벨메니 생산자평균가격은 플러스 동향을 보임. 8월 지표는 1월 지표보다 2,045.2루블/톤 증가하여 103,430.3루블/톤을 기록함. 이와 동시에 육류 파르쉬 평균가격도 145,036.3루블/톤까지 인상됨. 조각이 큰 육류반가공품의 생산자평균가격은 104,263.6루블/톤까지 인하됨. 하

지만, 식품시장에서 가격변동에도 불구하고 육류반가공품 시장은 그 인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2013년에도 플러스 발전 동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

(자료: 인테스코 리서치그룹)

○ 수입 전망

√ 러시아, 건포도 수입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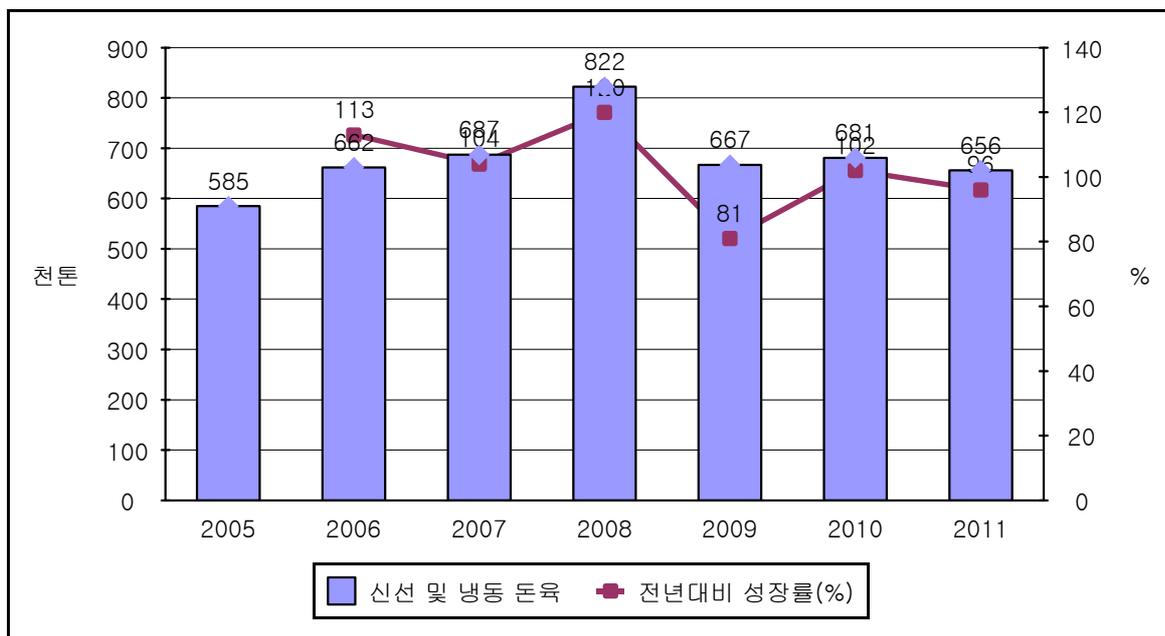
- 러시아에서는 지난 3시즌동안 건포도 수입이 1.6배 감소함. 마이너스 추세는 2012/2013년 시즌에도 지속될 것임. 공식통계에 따르면, 올 시즌 첫4개월 동안 건포도 공급규모는 10.9천 톤으로 집계되며 이는 전년동기대비 5% 감소한 것임
- 최근 2시즌동안 건포도 공급에 있어서 리더는 이란, 칠레, 아프가니스탄이며, 이들 국가의 비중은 러시아시장으로 공급되는 건포도 전체공급규모의 약 80%를 차지하고 있음

□ 러시아 돈육시장 동향

○ 수입돈육 공급동향

- 2012년 8월 22일에 러시아는 156번째 WTO 회원국이 되었음. 이에 러시아의 WTO 가입에 따른 러시아 돈육시장과 러시아 양돈업 부문에 미치는 파생결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
- 현재 러시아시장으로 들어가는 돈육 채널은 다음과 같이 구분됨: 1) 러시아영토에서 사육되고 도살된 가축의 육, 2) 다른 국가들에서 사육되고 러시아영토에서 도살된 가축의 육, 3) 다른 국가들에서 사육되고 도살된 가축의 육
- 특히 전체소비구조에서 러시아영토에서 사육되고 도살된 가축의 육의 비중이 식품안전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
- 러시아의 WTO 가입 이전까지 쿼터내물량 돈육 수입관세율은 높았고(공급가격의 15%, 단, kg당 최소 0.25유로) 쿼터외물량 돈육 수입관세율은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(75%, 단, kg당 최소 1.5유로), 러시아돈육시장은 수입공급에 의존하고 있었음
- 2005-2011년간 수입돈육의 평균 공급규모는 680천 톤 수준을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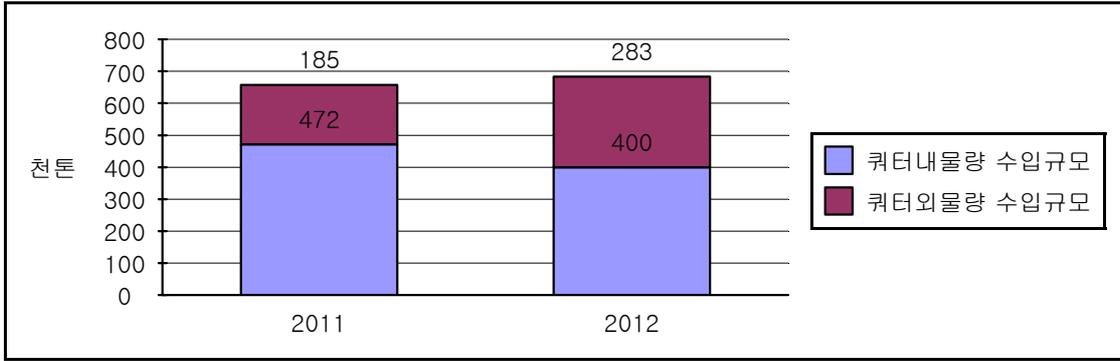
< 2005-2011년간 대러 수입돈육 공급동향 >



자료: 연방관세청, I-Marketing

- 2005-2008년간에는 수입공급규모의 성장이 매년 관찰되었으며 2008년에는 822천 톤에 이르는 최고치를 보임. 2011년에는 러시아영토로 돈육 656,663톤(2109.4백만 달러)이 반입됨. 2011년 1-9월간에는 공급량이 494,084톤을 기록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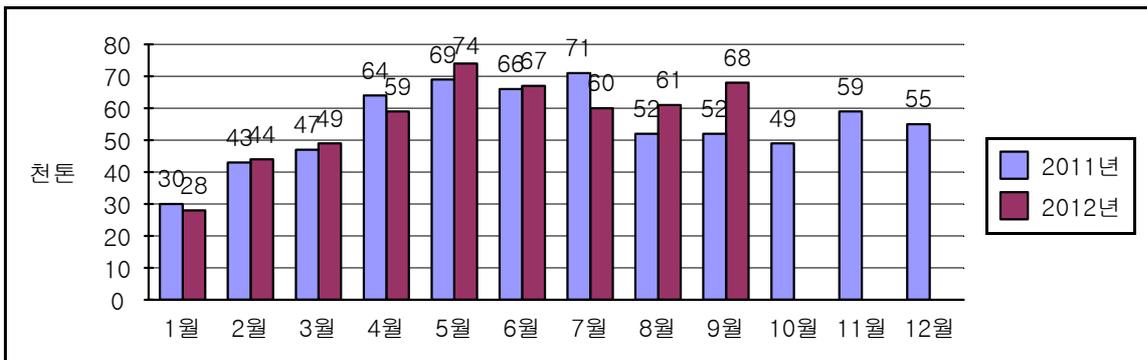
< 2011-2012년 쿼터 기준 수입돈육 공급구조 >



자료: 연방관세청, I-Marketing (*2012년 전망치)

- 2012년 1-9월간 돈육수입규모는 510,249톤으로 집계되며, 이는 전년동기대비 3% 증가한 것임
- 2011년에는 수입공급규모가 이미 9월에 지정된 쿼터물량을 넘어섰으며, 2012년에는 이미 8월에 쿼터물량을 넘어섬. 2012년 1-8월간 수입돈육 공급규모는 2011년 동기와 동일함. 성장은 9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는 수입상들이 관세율 인하를 기대하면서 공급규모를 억제했기 때문임
- 수입돈육 공급은 시즌성을 띠고 있음. 공급의 절정기는 1년 중 중순 무렵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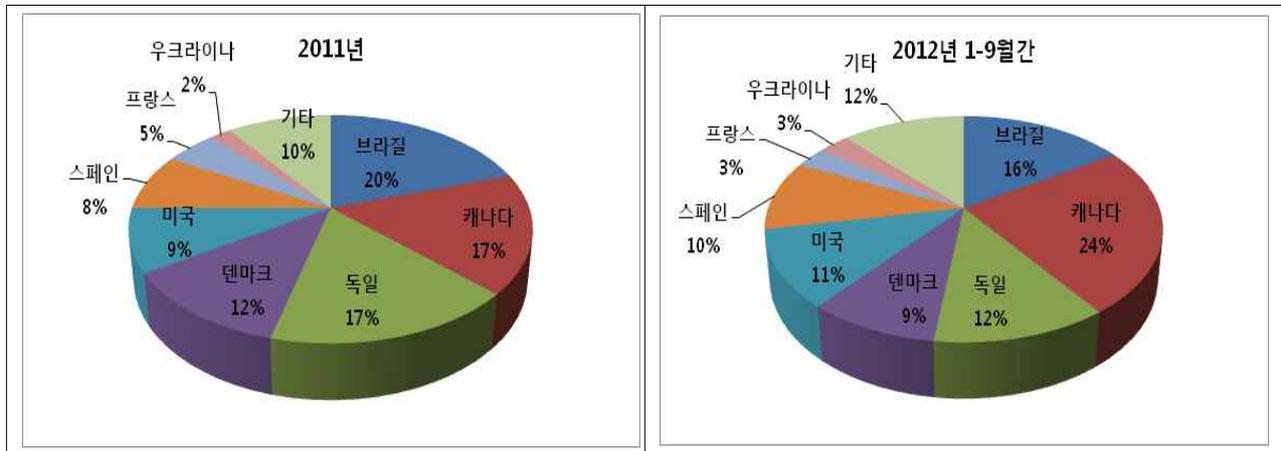
< 2011년-2012년 9월간 월별 수입돈육 공급동향 >



자료: 연방관세청, I-Marketing

- 수입돈육공급구조에서 냉동제품이 우위를 차지하며, 신선육의 비중은 2011년에 겨우 4%에 불과함
- 2011년-2012년 9월간 원산지국에 따른 수입돈육공급구조에서 주된 변화는 브라질이 1위 자리를 잃고 2위로 이동한 것임. 브라질 비중 감소는 4%p(20% → 16%). 캐나다의 비중 증가는 7%p(17% → 24%), 독일의 비중 감소는 5%p(17% → 12%)

< 원산지 국가에 따른 대러 수입돈육 공급구조(물량기준)(%) >



자료: 연방관세청, I-Marketing

- 2011년-2012년 9월간 러시아로 수입되는 돈육의 대형생산자는 Danish Crown(덴마크), Olymel S.E.C.(캐나다)임. 2012년에 Olymel S.E.C.사는 전체수입규모에서 수입공급 비중을 3%p 증가시켰고(6% → 9%), Danish Crown사를 추월함(Danish Crown사의 비중은 10%에서 8%로 감소함)

○ WTO 가입이후 변화

- 러시아의 WTO 가입 이후인 2012년 8월 23일부터 러시아돈육시장과 관련된 다음의 변화가 일어났음:
 - 1) 산 돼지 수입관세율은 40%(단, 1kg당 최소 0.5유로) → 공급가격의 5%로 인하됨
 - 2) 쿼터내물량(400천 톤)의 돈육 수입관세율은 15%(단, 1kg당 최소 0.25유로) → 0%로 인하됨
 - 3) 쿼터외물량의 돈육 수입관세율은 75%(단, 1kg당 최소 1.5유로) → 공급가격의 65%로 인하됨
- 이와 같은 변화는 러시아시장으로 들어오는 돈육 채널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. 특히 세 가지 변화 모두 다 러시아 양돈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. 왜냐하면 관세율 인하는 수입육류공급의 수익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결국 공급규모 증가를 초래하기 때문임
- 무엇보다 산 돼지의 수입관세율 인하는 산 돼지 수입 성장을 초래하고 있음. 수입산 돼지 도살 이후에 생겨난 돈육은 국내생산인 것처럼 공식통계에 반영될 것이며 러시아돈육시장의 해외국가 공급 의존성 수준과 제품안전 수준에 관한 왜곡된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음. 이와 유사한 상황은 러시아 쇠고기시장에서도 관찰되고 있음

○ 전망

- 중기적 전망으로, 러시아 양돈업자들의 현대적인 사료첨가물과 양돈업기술에 대한 관심 증대가 예상됨
- 돈육과 산 돼지의 수입관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, 돈육가격의 급격한 인하는 가까운 시일 내에 기대되지 않음
- 2013년에 돈육 부족현상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, 왜냐하면 러시아 내에서 돈육 수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